

LUXURY

MARCH 2021



20TH ANNIVERSARY

321명이 말하는 2021년의 럭셔리
SEOUL, THE CITY OF PALACES

Cartier

2021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티스트

시대에 대한 이해와 감성의 자극, 시각적 충격과 깊은 사유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예술 작품의 감상은 누구에게나 깊고 넓은 문화적 경험을 선사한다. 늘 수많은 아티스트의 등장과 발전을 근거리에서 목격하는 미술계의 전문가 20명에게 2021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작가의 이름을 물었다.



'Workshop for Peace/Oceans of Trauma', 2018, Photo: Eden Krsmanovic / Courtesy of the artist and CLEARING New York / Brussels



'May You Live In Interesting Times', Venice Biennale, 2019, Photo: Roberto Marossi / Courtesy of the artist and CLEARING New York / Brussels



'No history in a room filled with people with funny names 5', film still, 2018, Commissioned by Centre d'Art Contemporain Genève for Biennale of Moving Image 2018. Courtesy of the artist and Carlos / Ishikawa, London. 광주비엔날레 제공

but it will be built on the same empty promises



게리 예 Gary Yeh 미디어 & 프로덕션 컴퍼니 아트드링크 ArtDrunk의 창립자. 팔로워가 99만 명에 이르는 인스타그램의 예술 분야 파워 인플루언서다. 직접 관련한 전시를 리뷰하며 예술 감상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코라크릿 아룬나논차이 (b. 1986)

“몇 년 전 죽은 나무와 분유리의 빛이 에워싸는 듯한 ‘코라크릿 아룬나논차이(Korakrit Arunanondchai)’의 작품으로 걸어들어간 적이 있다. 그때 나는 그의 필름이 상영되는 옆 전시실에서 무거운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자신의 세계를 비디오와 조각, 페인팅과 퍼포먼스로 만들어내는 아티스트 아룬나논차이의 전형적인 전시 방식이다. 그는 태국의 신화와 관습, 자신의 조부모를 소재 삼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세계화의 문제, 테크놀로지, 정치를 이야기하는 작가다. 2019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와 휘트니 비엔날레에 참여하며 세계적 명성을 얻었고, 올해는 제13회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 지구적인 이슈를 개인화해 선보임으로써, 참여한 국제적 전시마다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어낸 아룬나논차이는 단연 눈여겨보아야 할 작가다.”

“최근 몇 년간 주목해야 할 작가 중 빼놓을 수 없는 이가 있다. 바로 태국 방콕 출신의 ‘코라크릿 아룬나논차이’다. 작가는 시각예술가이자 영화제작자, 스토리텔러로 여러 매체를 사용해 역사부터 개인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그의 작업은 혼성적이지만 혼란스럽기보다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가장 동시대적인 방식으로 공감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2019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여러 영상들을 결합해 완성한 그의 미디어 작품을 보던 순간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미디어나 설치 작업에 비해 쉽게 소장 가능한 일부 그의 평면 작업들은 이미 주요 옥션에 등장해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뉴욕 현대미술관 PS1, 베네치아 비엔날레, 휘트니 비엔날레 등 주요 비엔날레에서 전시하며 큰 호평을 받았고, 오는 4월 개막하는 광주비엔날레에서도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한들 학교재, 갤러리현대 등을 거치며 전시 기회를 많아왔다.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로 현대미술사와 미술비평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월간미술>, <보그> 코리아 웹 등에 다수의 글을 기고했으며, 현재 <세계일보>에 칼럼을 연재 중이다. 지은 책으로 <혼자 보는 그림>이 있다.



여름 소녀, Oil on linen, 162.2x130.3cm, 2018

구지윤 (b.1982)

“구지윤의 회화 작업은 눈과 귀를 함께 자극한다. 작가는 소란스럽고 바쁜 도시의 일상과 풍경 속에서 세심하게 포착한 다양한 층위의 감정, 그중에서도 특히 도시 속에 은밀히 내재된 불안이나 공허를 표출한다. 그녀의 작업은 특정 대상에 대한 구체적 묘사나 균형 잡힌 구성이 아닌, 캔버스 위에 물감을 칠하고 긁어내고 다시 물감을 쌓아 올리는 과정을 통해 색채와 선 등의 조형 요소들이 서로 뒤엉킨 추상 회화로 귀결된다. 이러한 조형적 과정을 통해 작가가 포착한 도시 속 불안과 공허가 야기하는 미묘한 심리가 공감각적으로 발현된다는 데에 구지윤 작가의 회화가 갖는 독특한 묘미가 숨어 있다.”



강소경 아라리오 갤러리 디렉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갤러리현대 전시팀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전시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



(백면 작품) 'Projeté Triptyque', Pigment on paper, 180x125cm, 2019, (조각) 'En Spirale', Aluminium, 110x140x120cm, 60kg, 2018-2020

윤희 (b.1950)

“재불 작가인 ‘윤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조각을 만든다. 그녀가 사용하는 재료는 펄펄 끓는 금속 용액. 천장이나 바닥, 혹은 허공에 뜨거웁게 금속 용액을 던지고, 그 용액이 굳어가는 순간에 작가의 움직임이나 몸짓을 담아 형태를 완성해낸다. 때문에 작가의 의도를 떠나 작품의 많은 부분이 우연에 의해 마무리되고 완성된다. 그렇기에 여러 개의 에디션이 존재할 수 없으며, 한 점 한 점이 더 특별하게 다가온다. 작가는 리안갤러리의 전신인 시공갤러리의 소속 작가로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고, 2002년과 2003년엔 FIAC 아트페어에서 박서보 작가의 작업과 나란히 소개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2019년에는 홍콩 아트바젤에서 솔드 아웃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인기나 작품가에 연연하지 않고 40년 동안 꾸준히 한길을 걸어온 작가, 윤희의 작품을 더 많은 이가 알고 즐겨주기를 바란다.”

안혜령 리안 갤러리 대표. 38년의 아트 컬렉팅 경험을 통한 안목을 바탕으로 현재 리안갤러리 서울과 리안갤러리 대구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유명 작가들의 개인전을 여는 한편, 전속 작가인 이진용, 남춘모, 윤희, 김택상, 이광호 등을 해외로 소개하고 있다.



이채은 (b.1979)

“뉴욕 쌍둥이 빌딩의 붕괴,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수많은 재난을 마주해야 했던 지난 20년을 지나오며, <럭셔리>를 비롯해 많은 이가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내가 좋아하는 문구 중 하나는 아티스트 로랑 그라스 Laurent Grasso의 작품 제목이기도 한 'Memories of the Future'다. 앞으로 20년 후 우리는 어떤 미래에서 어떤 기억을 만들게 될까. 최근 네덜란드에서 개인전을 열며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채은'의 작품에는 여러 시대와 매체의 풍경이 콜라주되어 있다. 고전 명화, 영화나 방송, BTS 같은 대중문화의 아이콘까지. 그의 작품을 볼 때면 나만의 이야기 또는 역사의 궤적을 그려보게 된다.”

로렌시나 화랑트 리 송은 아트스페이스 관장. 영국 런던 소더비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에서 미술사 과정을 수료하고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했다. 아트 컨설팅 회사 로렌스 제프리스를 설립해 25년간 운영해오고 있다.



The Moment Your Smile Fades Away, Oil on linen, 227.3x182cm, 2019